

강화역사박물관·자연사박물관, 가상·증강현실 체험 스마트 박물관으로 재탄생한다



강화군역사박물관

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강화역사박물관과 강화자연사박물관이 선정돼 국비 5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고 17일 밝혔다.

강화역사박물관에는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실감콘텐츠 제작과 인터랙티브형 체험존이 구축된다. 체험존에는 1849년 철종을 모시러 오는 행렬을 그린 '강화 행렬도'를 프로젝트 영상을 통해 360도로 투사하고 인터랙티브 기술로 관람자가 시공간을 초월해 행렬에 함께 참여하는 듯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된다.

강화자연사박물관에는 국비 5천만 원을 포함한 등 총 사업비 1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전시해설 콘텐츠를 구축하고,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주요 전시품을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식물과 동물 등 자연이 살아움직이는 흥미롭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제공하게 된다.

한편, 강화역사박물관과 강화자연사박물관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하점면 고인돌 공원 옆에 위치하고 있다. 강화의 선사시대 유물, 고려왕릉 출토 유물, 전통사찰 소장품, 구한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서 사용한 무기류 등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전시를 도입해 보다 다채롭고 역동적으로 콘텐츠를 구성하겠다"며 "내·외국의 관람객들이 생생하고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방역·재택관리 상황실 통합 운영



행정과_체육팀

강화군은 지역사회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코로나19 방역·재택관리 상황실'을 통합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4일 '코로나19 방역·재택관리 상황실'을 통합해 감염병 대응과 재택관리 지원 업무를 군 보건소로 일원화했다.

이는 코로나19 고위험군 집중 관리군의 재택치료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황실은 ▲감염병총괄반 ▲역학조사반 ▲재택관리반(행정안내센터)으로 구성했으며, 전담 인력 보강 및 행정인력 지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확진자 관리를 위한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또한, 재택치료관리 전담의료기관 1개소, 동네 병·의원 비대면 상담·처방 의료기관 11개소, 코로나치료제 전담 약국 3개소를 지정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유천호 군수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오미크론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모든 확진자에게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전액 군비! 소상공인·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강화군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운수종사자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전액 군비로 직접 지원.

군은 생활안정자금으로 33억 원을 전액 군비로 마련하고,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자가 소상공인에 50만 원, 운수종사자에게는 100만 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1. 2. 21)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소상공인과 운수종사자이다.

군 관계자는 "매출에 직접 타격을 받으면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성실하게 동참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운수종사자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최선을 다해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지원신청 ▶ 3월 31일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우편 접수(강화읍 강화대로 394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 운수종사자 지원신청 ▶ 2월 25일까지 강화군 경제교통과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문 참조

강화구간부터 착공하도록 역량집중

강화군,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강화군이 지난 9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로 환경적 측면에서 노선 주변의 환경현황을 분석하고, 건설사업 시, 각종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이 제시됐다.

지난 2020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21년 3월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해 이달 중 용역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사업비 협의와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4년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사업'은 연장 29.9km, 폭 23.4~30.6m(왕복 4~6차로)로 총사업비 2조 8,85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계양~강화 고속국도'가 개통되면 수도권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군민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성장이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맞는 고속국도 접속 위치와 접속에 따른 주변 교통체계 정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강화와 김포를 잇는 고속도로 교량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 최백하 기자



계양-강화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농어업인 공익수당 확대, 주문대교 건설 등 지원 지역 균형발전 위해 인천시의 정책적 배려와 통 큰 지원 강조 강화군, 박남춘 인천시장에 현안사업 지원 건의

유천호 강화군수는 22일 강화군을 찾은 박남춘 인천시장을 만나 군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유천호 군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확대지원 ▲주문대교 건설사업 추진 ▲월선포~상용 해안도로 공사 추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상동암리 일원 인도설치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통 큰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농어업인 공익수당 확대'는 인천시의 모든 농어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문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인천시의 정책적 배려를 당부했다. 아울러, '월선포~상용 해안도로'는 교동대교 개통 후 쇠퇴한 월선포의 교통여건 개선과 관광·휴양 자원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유천호 군수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황청~인화간 해안순환도로 4-1공구' 등 관내 주요 사업현장을 함께 방문해 지역 현안을 직접 챙겼다.

박남춘 시장은 "현재 인천시에서 정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며, 공익수당 확대와 관련해서는 강화군의 의견을 긍정

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문대교 건설사업 설계비 10억 원, 상동암리 일원 인도설치 사업비 10억 원, 황청~인화간 해안순환도로 20억 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비 등 지역 발전을 위해 강화군에서 요청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지법에 의한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뒤쳐지고, 인천시 타 군·구과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시의 정책적 배려와 통 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유천호군수_박남춘 인천시장에 통 큰 지원 건의

Photo NEWS

현·장·행·정



고구마 무병묘 육성 현장 확인



강화주니어외교관 1기 해단식



인천시장 강화군 사업현장 확인

강화군의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최



강화군의의회 임시회

강화군의의회는 지난 14일 2022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을 비롯해 강화군수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은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강화군의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6건과 '강화군 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한, 16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25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군의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인(壬寅)년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용맹한 기운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군(軍) 검문소 통합·이전 및 관광·문화 기반시설 대폭 조성



행정과_군 검문소

강화군이 접경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인 군(軍) 검문소를 통·폐합 및 이전하고, 관광·문화 기반시설을 대폭 조성한다. 군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지역 군부대와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상반기 중 검문소 통·폐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민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하점면 신봉리 검문소는 폐지 후 교동대교 검문소와 통합하고, 송해면 당산리와 양사면 철산리의 검문소는 평화전망대 인근으로 이전해 통합 운영된다. 통·폐합이 완료되면 상습적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방문객들의 관광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양사면에는 남북1.8센터(20억 원), 산이포 민속마을 조성사업(90억 원), 교산리 공영주차장 조성(16억 원)과 하점면에는 강후초등학교 문화재생사업 및 별자리 관측소 건립(65억 원), 창후항 어촌뉴딜 사업(94억 원)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교동면에는 송암 박두성 생가 복원사업이 완료된 데 이어 강화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화개정원 및 전망대 조성사업(380억 원)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안보와 안전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북부지역에 부족한 관광·문화 기반시설을 대폭 조성해 남부지역과 균형을 이루며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외포리에 군 최대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앞서 선제적 주차기반 확보



외포리 주차장 조성도

군은 '외포리 프로젝트 종합개발' 및 '외포권역 어촌뉴딜 300'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부지면적 10,007㎡, 차량 329 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오는 5월까지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 최대 새우젓 산지인 외포리에는 외포 수산물 직매장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만, 성수기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해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다.

군은 '외포리 프로젝트 종합계획'으로 ▲오는 10월에는 퇴역함정을 활용한 함상공원을 조성해 조선의 최초 해군사관학교인 통제영학당을 기념하고 ▲25년까지 관내 모든 수산·어업인이 참여하는 '종합어시장'을 새롭게 건립한다. 또한, '외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을 2024년까지 추진해 ▲물양장, 선양장, 선착장, 어구어망창고 등 어촌기반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외포항 포토존 정비, 바다쉼터 조성 ▲수산물직판장 새우젓 상징 특화 ▲삼별초 역사광장 정비 ▲갈매기 생태학습장 등이 조성된다. 이외에도 ▲외포와 석모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유치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외포리 프로젝트, 어촌뉴딜 사업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조성해 관광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침체된 외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 지자체 최초!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 위생용품 지원한다



강화군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 위생용품을 지원한다.

군은 모든 여성 청소년들이 낙인 효과 없는 기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내 만 9세~18세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보편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차상위·

한부모 계층에게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보건위생용품 지원과 중복 지원은 불가)

신청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로 휴대폰 ‘인천e음’ 앱과 홈페이지(<https://incheoneum.or.kr>),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

청할 수 있다. 위생용품은 관내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1만2천 원으로 매달 25일에 강화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전용 바우처 카드인 ‘Rose Card’로 지원한다. 여성 청소년들이 디자인을 선정한 ‘Rose Card’에는 장미의 꽃말인 순결, 새로운 시작, 그리고 강화군에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여성 청소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며 “차별과 낙인효과 없이 관내 모든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업자미등록 농어촌민박사업자 100만 원 직접 지원 강화군, 전액 군비! 사각지대 없는 긴급생활안정금 지원

강화군은 사업자미등록으로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에서 배제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권으로의 편입 유도를 위해 순수 군비로 사업자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기준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이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로 강화군 농정과 또는 민박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며 “앞으로도 재난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는 28일까지 접수, 진강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346가구 대상 강화군, 군 소음 피해 군민 개인별 보상금 지급한다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군 소음피해 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군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군은 ‘군 소음’에 대해 군민 피해와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방부 고시에 따른 제병협동훈련장(진강산) 일원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실제 거주한 346가구이다.

군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결과를 개별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이내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보상금은 내년 2월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보상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강화군 환경위생과 또는 거주지 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만 유효하다. 보상금액은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1종은 월 6만원, 2종은 4만 5천원, 3종은 3만원으로, 사격일 수, 전입 시기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소음피해 보상제도의 첫 시행에 따라 대상자가 빠짐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 대상자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Photo NEWS 내 고장을 가꾸고 지키는 사람들



자원봉사센터_찾아가는 클린방역의 날



내가면_글로벌세프고 밭차



내가면_농업부산물 처리



교동면_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안정비

강화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로 미세먼지 저감 실현

오는 25일까지 접수,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



농업기술센터_조기폐차

강화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원 저감을 위해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의 감축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을 위해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2012. 12. 31.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이하 농업기계) 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업기계이다. 지원금액은 농업기계의 제조년도 및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최대 2,249만 원, 콤바인은 최대 1,31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소유한 농업기계 중 1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농기계의 용자금 상환 완료 및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에 대해 증명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동·운전이 가능한 정상가동 되는 농기계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해 노후 농기계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희망 농가는 오는 25일까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문의 ▶ 강화군 읍·면사무소 산업팀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기계팀 ☎ 032-930-4170

소형농기계 494대 보급, 최대 132만 원 보조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강화군,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강화군이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기계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지난해 보다 2억 2천만 원을 증액한 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편성해 친환경 소형농기계 83기종, 494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관내 농지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단,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우선 지원된다. 선정된 농가에는 최대 132만 원(보조비율 6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기계 현대화를 위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친환경 소형농기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도 해소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희망농가는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제출 문의 ▶ 강화군 읍·면사무소 산업팀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기계팀 ☎ 032-930-4170



농업기술센터_친환경 소형농기계

육묘하우스 증식, 내년부터 일반농가에 공급

강화군, 속노랑고구마 조직배양기술로 명품화한다

유천호 군수는 24일 ‘강화속노랑고구마’ 조직배양묘 분양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군은 ‘강화속노랑고구마’의 품질과 상품성이 우수한 조직배양묘를 육묘농가에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배양묘는 육묘하우스에서 증식해 내년부터는 씨고구마로 일반농가에 공급된다.

조직배양묘는 무병묘라고도 불리며, 일반묘 대비 20~30% 수량 증수와 고구마의 모양, 과피색 등의 품질이 균일하고 상품성이 좋아, 농가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20년에 조직배양실(124㎡), 순화온실(330㎡)을 갖추고, 육묘농가의 씨고구마를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조직배양묘 증식·보급체계를 구축했다.

군 관계자는 “속노랑고구마를 지역 대표 농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조직배양묘를 확대 보급하겠다”며 “친환경 멀칭 필름(생분해 필름)도 보급에 힘써 고구마 농사에서 일손이 가장 크게 들어가는 비닐 씌우기에서 시간과 노동력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벽하 기자



고구마 무병묘 육성 현장 확인

“조례와 절차에 따라 군구 및 농어업인과 폭넓은 공론화 이행 촉구” 20여 일 만에 6,530명 뜻 모아 서명

강화군 농업인단체, 농·어업인 공익수당 확대 서명 연명부 인천시에 전달

강화군 농업인단체(대표 이봉영, 이하 ‘농업인단체’)는 17일 인천시의 농·어업인이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익수당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 연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했다.

이날 농업인단체는 강화군농업인회관에서 인천시의 공익수당 지급 결정에 환영 입장을 재차 밝히고,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공익수당을 확대 지급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이어,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으로 불과 20여 일만에 농어업인 6,530명의 뜻을 담아낸 연명부를 인천시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강화군은 농어업인의 염원을 담아 월 1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7억 6천만 원을 반영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제2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5일 확정된다. 또한, 군 관계자는 인천시와 재원부담을 위한 사전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봉영 대표는 “그동안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력난, 농산물 판매감소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을 위해 신선한 먹거리 생산과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조례와 절차에 의해 군·구 및 농

어업인과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가 농어업의 현실적 어려움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 바라며, 공익수당 확대에 대한 의지표명으로 연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화군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 강화군연합회(회장 이봉영), 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회장 주혁돈), 생활개선 강화군연합회(회장 김학순), 한국여성농업인 강화군연합회(회장 고은숙), 강화군쌀작목연합회(회장 한기관)가 참여한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농업인단체 공익수당 확대 촉구

3.4일까지, 지속적인 시민참여로 녹색도시 기대

인천시, 시민참여형 ‘가로수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인천광역시가 오는 3월 4일까지 ‘가로수지킴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로수지킴이’는 도시 숲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다함께 인식하는 계기를 통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처음 시도된 후 지난해 까지 304단체 2,303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주된 활동내용은 가로수 피해, 병충해 발생신고, 가로수 불법광고물 제거, 가로녹지 쓰레기줍기, 낙엽 및 잡초제거, 가뭄 시 물주기 등으로 수목관리 및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가로수지킴이가 바라본 인천 최고의 가로수길 사진 선정’과 ‘활동내용 중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과 추억이 될 만한 익살스런 광경 사진 선정’등 참가자들에게 흥미로운 자원봉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박세철 시 녹지정책과장은 “가로수지킴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공공시설에 대한 주인의식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시민참여로 녹색도시가 한층 더 빠르게 구현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목관리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가족 및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군·구 담당자 e-mail 이나 유선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권주형 기자

※
접수처
군·구별
담당자
연락처

연번	기관명	e-mail	연락처	비고
1	중구 도시개발과	kyj88888@korea.kr	760-7583	
2	중구 도시공원과	wltjs216@korea.kr	760-8848	영종, 용유
3	동구 도시경관과	Lch4u86@korea.kr	770-6183	
4	미추홀구 공원녹지과	cha5225@korea.kr	880-4495	
5	연수구 공원녹지과	k2w1118@korea.kr	749-8705	
6	남동구 공원녹지과	qssq8668@korea.kr	453-2864	
7	부평구 공원녹지과	skk0783@korea.kr	509-6994	
8	계양구 공원녹지과	choeesk@korea.kr	450-5654	
9	서구 공원녹지과	lyk139000@korea.kr	560-4654	
10	강화군 산림공원과	green5448@korea.kr	930-3879	
11	옹진군 환경녹지과	tuliptree13@korea.kr	899-2634	
12	인천시 녹지정책과	kongkh10@korea.kr	440-3663	문의

인천시, 전기승용차 구입하면 최대 1,060만 원 지원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1.1만대 보급 목표

인천광역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년대비 96% 증가한 전기차 1.1만대 보급을 목표로 환경부 국비 843억 원을 포함한 1,2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9,849대, 전기화물차 1,095대, 전기버스 62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 시 국비 500만원,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차량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6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2,000만원, 전기버스(대형)은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기준)이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를 위해 사업공고를 상

반기와 하반기에 2회 공고를 시행하며, 법인·기관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시비보조금은 50%가 감액된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제외)등으로, 사업공고일부터 접수 받으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공고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올해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대폭 확대하여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생활 속 에너지 절감…소나무 12만 그루 심는 효과 거둬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난해 온실가스 총 1만5천톤CO2 감축 효과 전기·상수도 등 에너지 절약 시 인센티브 지원, 아파트 단지 최대 600만원

인천광역시시는 생활 속 에너지 절감 사업인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15,767톤CO2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6년부터 가구와 아파트 단지를 구분해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을 추진해 왔다.

탄소포인트제란 전기·상수도·도시가스 항목의 에너지 사용량을 과거 2년 평균 대비 5% 이상 감축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가정·상가 등은 개별참여자로서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단지참여자로서 가입할 수 있다. 평가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전기·상수도·도시가스 항목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가구는 15,282톤CO2, 아파트 단지는 485톤CO2 감축해 총 15,767톤CO2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중부지방소나무 12만 6천 그루를 심는 효과와 비슷하다.

시는 사업에 참가 신청한 가구의 에너지 감축량에 따라 53,272가구에 4억8천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11단지 아파트에는 8백 6십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아파트 단지 인센티브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1개 항목 기준)까지이며, 최고액은 240만 원으로 서구 청라우미린 아파트가 에너지 절약 실천 우수아파트로 선정됐다.

특히, 남동구 담방마을 아파트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연속 온실가스 절감 성과를 거둬 3개년 간 총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으며, 공동체내 에너지 절약 실천 노력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

정받아 정명용 아파트관리소장이 모범선행시민 표창을 받았다

인천시 가구 가입률은 전년도 3개년 평균 실적에서 8%정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전체 가구 수(총 117만 가구)의 9.5%인 110,944가구의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50세대 이상 아파트 총 820개 단지 중 354개 단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상태이고, 올해는 390개 단지까지 가입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가입을 원하는 가구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직접,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 대표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에서 가입할 수 있다.

관련 가입신청서와 홍보포스터,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수칙이 담긴 ‘탄소중립 생활 실천안내서’ 등은 인천시 홈페이지 환경분야 자료실(<https://www.incheon.go.kr/env/ENV050201>)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 권주형 기자



김포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중소기업 등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최대 800만 원 보조

김포시는 올해 8월18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와 관련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종업원 200명 미만 중소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최대지원금액은 8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10% 이상 자부담해야하고 오물의 수거·처리 작업장, 유
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등 3D업종과 야간작업 포함 교대작업을 하는
사업장, 주로 서서 일하는 사업장 등을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개정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
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
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는 현장노동자의 안전
하고 쾌적한 휴게권 보장 등 입법취지에 맞게 열악한 시설 개선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장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

휴게시설 개선범위는 휴게시설 신규설치나 확장, 환기·도배·장판·냉
난방 시설 등 노후시설의 개·보수, 휴게실 내 탈의실·샤워실·세탁실·화
장실 설치 등에 따른 쇼파, 탁자, 개인사물함, 세탁기, 식수대, 전자레인
지, TV 등의 비품으로 시설 개선이 없는 비품 구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다음 달까지 신청서, 자체조사 등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개선규모 및 자부담 정도에 따라 6~10개소를 선정하고, 4월중 보조금
대상자와 보조금액을 최종 확정하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올해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김포시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 절
감은 물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한 예산 4억5백만 원을 들여 총3,950
대(일반3,930대, 저소득층20대)를 교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기존 노후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
는 김포시 소재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로 일반
가정은 보일러 1대당 10만 원, 저소득층 가정은 보일러 1대당 60만 원
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통해 연료비도 절감하고
일상 생활속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
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14일부터 3월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자
가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보일러 공급자와 구매계약을 맺고 설치
후 공급자에게 위임하거나 직접 보조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김포시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청 홈페이지(www.gimpo.go.kr) 고시·공고문 참조
문의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 031-5186-4083

김포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로 전환 시 보조금 700만 원 지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미세먼지를 줄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
함은 물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에서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43대의 어린이 통학용 LPG차량
에 대해 LPG차 전환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그동안 지원하였던 물량보
다 약 1.2배 많은 50대의 물량을 확보하여 1대당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접수는 2월 16일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보유하고 있던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이다. 아울러 특례조항으로 올해 말까지 경유차 폐차 여부
와 관계없이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에 통학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시설도 지원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3년 4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어린이 건강을 위해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유차량 사용이 금지되는 만큼, 본 사업을 통해 미
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
록 관내 어린이집, 학원 등 지원대상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 권주형 기자

문의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 ☎ 031-5186-4078



고촌도서관 특화프로그램
영어랑 동화랑

우쿨렐레 치는 영어 선생님과 함께
매주 다른 주제(날씨, 인체, 음식, 동물)로
영어동요를 부르며 동화책 읽는 시간

운영일시	2022.3.7.~2022.3.28. 매주 월요일 16:00~17:00
강사	김선아
대상	7~8세 어린이 20명
운영방법	비대면(ZOOM) 온라인 강의
접수기간	2022.2.21.~ 마감 시
접수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	031) 5186-4850

 고촌도서관
GOSON LIBRARY

기고

봄나들이



고 수 진
강화향교 장의

절구 밑에 봄 틈새마다 자지러진
압튼 꽃은 예쁘다 서럽다 할 게 없는
미세먼지 속 옷깃을 털고 봄비

지난 월요일(2월 14일) 오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미세먼지와 추위 때문에 안방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어머니께서 창밖을 내다보시고는 “비가 온다.” 하셨습니다. 많은 비는 아니었지만 ‘봄비’였습니다. 기왓골에는 잔설이 녹아 情感정감의 고드름이 매달려 이제 봄이구나 하는 기대? 기대가 컸던지, 이후 날씨는 곤두박질 흑독한 영하의 날씨가 계속 되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을 맴돌며, 체감온도는 영하 10도의 추위였습니다. 아마도 봄비의 배반을 양값음하는 듯합니다. 봄비의 언어 속에는 파릇한 보리밭의 시각적 효과를 갖기에 충분했는데, 절구 밑에는 매년 제비꽃이 가장 먼저 폈었는데, 이내 무참히 밟혀버린 기분입니다.

그에 앞서 정월 대보름 장에 손님 두 뱃님네가 강화도를 찾아오셨습니다. 친근한 뱃이었던 만큼 반가웠습니다. 작년 말에 ‘崇祖書—會翁조서일회’ 서예 작품전에 오시고는 해를 바꿔 거의 두 달여 만입니다. 成均館대성균관대 退溪人文館퇴계인문관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유봉자원방래, 불역낙호!”

“有朋유봉” 즉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朋봉”은 당연히 學友학우이겠습니다. ‘朋봉’은 같은 스승 밑에서 수학하는 뱃이고, ‘友우’는 뜻을 같이하는 뱃이랄 수 있습니다. 하여 朋友봉우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는 곧 儒學유학의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뱃님네들이 먼 곳 또는 사방 곳곳에 몰려오니 참으로 기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文句문구는 『論語논어』 「學而학이」편 1의 두 번째 문구입니다. 그렇다면 筆者필자와 두 분의 손님과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공유하는 뜻이 무엇 인가?를 궁금해 물을 것입니다. 별다른 아닌 강화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2009년부터 다년간 강화역사문화 해설사로 근무하였고, ‘인천시 문화보존 사업단’에서 청동기 문화인 고인돌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에게 강화도의 역사를 안내했습니다. 또한 강화 나들길 길라잡이로서 강화도의 곳곳을 완주하고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뱃님네들에게 강화도의 역사문화를 披瀝피력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서예 공부를 병행하면서 해마다 서예 작품전을 통해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분을 꾸준히 두터이 해왔습니다.

“집안 일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어느 제자의 질문에 퇴계 선생의 답은 간단합니다. “집안 일이 공부지, 공부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부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苦言고언인 것입니다. 필자를 찾은 뱃님네들은 현업에서 퇴직하여 山戰水戰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제 노년의 길에서 삶의 餘白여백을 즐기려는 것입니다. 물론 새롭게 經典경전과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삶의 지혜는 책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얻어지는 양식인 것입니다. 책은 도구일 뿐이고, 真理를 구현하는 길은 내 자신의 率先垂範솔선수범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행은 “學而時習학이시습”의 변형일거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좀처럼 여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미세먼지와 영하권의 날씨 더더욱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가고, 급기야 9만여명, 10만 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봄나들이라 하면 좀 성급하기도 합니다만 뭐, 어떻습니까! 철저한 준비로 뱃님네를 찾아 넓은 평야 또는 봄 바다, 허기진 삶의 욕구를 충만 시킬 수 있다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고, 강화도의 먹을거리를 즐기고, 강화도 역사의 현장과 자연학습 산과 바다, 갯벌의 풍광을 탐닉하며, 마음속 일상의 찌꺼기를 쓸어내는 것입니다, 새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여 뱃님네들은 筆者필자를 ‘강화도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長相思장상사 毋相忘무상망 遊相和유상화” 서로를 생각하여, 서로를 잊지 않고, 서로 어울리며, 강화도의 곳곳을 관광하며 음식을 즐기는 것입니다. 선수포구에서 요즘 강화도 음식은 당연 봄 송어이겠습니다. 삼식이 매운탕에 서너 순배 술잔이 오고가면 이보다 더 좋은 人情인정이 어디 있겠으며, 노년의 평생학습이 따로 있겠습니까.

선수포구의 바다는 봄빛이 역력했습니다. 갈매기의 날개 짓 이 쾌활했습니다. 아직은 찬바람, 미세먼지 때문에 차창을 열 수는 없었지만 차창 안으로 봄별은 따뜻했습니다. 차를 몰아 장화리 落照낙조 마을로 향했습니다. 낙조마을 조망대 갯방죽 나들길 북일꽃돈대, 갯벌센터의 여정을 걸었었으며, 어느 해엔 해님이 詩시낭송에도 참여했던 기억이 새삼스러웠습니다. 갯벌의 탁 트인 광활한 공간이 후련했습니다. 쇠기러기 떼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동막 해변을 돌아가는 길에는 이미 상춘객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봄은 생명입니다. 여행은 마중물 이다.라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기지개를 켜야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긴장감 여행은 바로 삶의 기지개인 것입니다. 정수사 함허동천을 거쳐 전등사를 지납니다. 강화도 곳곳의 역사와 문화를 한순간에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강화도를 사랑한다면, 언제든 또 올 수 있는 것이고, 필자 역시 근 20여 년 우정의 뱃님네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大同江대동강도 풀린다는 雨水우수입니다. 꽃샘추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방의 기러기 제 고향으로 날아갈 때입니다. ㅍ

북아트로 만나는 역사 속의 김포, 근대화와 독립운동

양곡도서관

양곡도서관 도서관주간 특화 프로그램



운 영 개 요	
일시	2022.04.07~04.28 (매주 목) 16:00~18:00 (총 4회차)
대상	연령 3~5학년 (15명 (권내 초등학생 우선))
운영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강사	이선주 강사
등록비	20,000원
*자본비 입금 완료 신청자에게 별도 개별 연락 (문자 발송 예정)	
*강좌 수강 최소 인원 충족시 진행 가능함 (3.31(목) 15:00까지)	

신 청 방 법	
신청일	2022.02.22 (화) 09:00~ 신청은 마감
발표일	양곡도서관 홈페이지(문화행사신청)
*온라인 접수	
문의 031-5186-4825	

기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한 삶에는 선례도, 예법도 없다.



김홍식
온수의원 원장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조차도 유일하게 강화군에서 2년 가까이 매월 지속적으로 강화군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로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코로나(원 둘레에 방사형으로 빛이 퍼지는 형태) 모양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일반적으로 환자의 침방울 등의 분비물을 통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역마스크 착용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는 하루 3만명 이상의 확진자를 일으키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며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도권 접경지역의 한 작은 지역 강화군이 군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22년 1월에는 1인당 코로나-19 마스크 10개와 함께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배부한 것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강화군에서 진정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선제적 행정을 펼치고 있음에 큰 감명과 강화군에서 살고 있음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저는 강화군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35년 가까이 강화군의 작은 면에서 동네 의료기관인 의원(병원)을 운영하고 성장해 오면서 강화군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의원에 오시면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우연히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강화군에서 배부하는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한 때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던 시기에 어르신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자녀들과 손자·손녀에게 준 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란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머니, 마스크는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세요. 마스크가 다 낡고 새까맣게 되도록 사용하지 마시고,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것을 쓰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우리 강화군에서 매달 마스크를 배부해 주지 않았다면 거동도 불편한 어르신들께서 과연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착용이나 하셨을까?’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교통수단도 불편한 농촌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개인의 위생을 생각하며 매번 약국을 방문하여 마스크를 구입하셨을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매월 마스크를 구입해 부모님들께 보내주는 자녀들이 몇이나 될까?’

강화군의 인구는 현재 6만 9천명이 조금 넘고 이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35% 가 넘는 2만 4천여 명이라고 한다. 만일 강화군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전 군민 코로나-19 마스크 배부’ 사업이 없었다면 우리군의 어르신들은 지금쯤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에 직면했을 것이란 상상을 해 보니 앞이 캄캄해 진다.

어떤 일부 개인의 치적이나 내 세워 보자는 사람들이 ‘선심성이다.

주민을 모독한다.’ 라는 말로 군민들 편 가르기를 하듯 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한두 번 주고 말았다거나 선거에 임박해서 한 것이라면 모를까....

코로나-19로부터 강화군이 군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2년 가까이, 매월 실시해온 마스크 보급은 선심성도 아니요 주민을 모독하는 것도 아닌 강화군과 공무원들이 강화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의 모습이라 생각 된다. 지속적으로 매월 마스크를 보급하는 것이 인천광역시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일하다는 것은 35년 강화군에 사는 나로서는 자부심과 긍지가 생긴다. 그리고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써 무척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옛 중국의 사마천이 쓴 사기열전의 진나라 효공과 위왕의 대화중에 이런 말이 있다. “확신이 없는 행위는 명예가 될 수 없고, 확신이 없는 사업은 공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비난을 받기 쉽고, 독특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반드시 백성에게서 비방을 받기 마련입니다.

성인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결코 선례를 따르지 않으며, 백성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결코 예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코로나-19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 이렇게 오랜 기간 싸움을 해 본 경험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영국, 가까운 일본에서조차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강화군과 강화군의 공무원들은 선제적인 행정을 펼치며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은 나를 비롯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 같이 잘 했다고 평가를 한다. 그러한 정책이 바로

첫째,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를 막고 방문객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것. 둘째, 종교시설에 코로나 방역비를 지급한 것. 셋째, 마스크를 2년 가까이 모든 군민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화군민이며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강화군과 강화군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 이유로

하나, 강화군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길, 강화군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에 결코 예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둘째로, 강화군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에 결코 선례를 따르지 않으며 세 번째로, 오직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행복만을 생각하는 선제적 행정력을 펼쳤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0년에 강화군에서 실시한 민간의료기관 장비 지원사업으로 먼 구석에서 자리한 의료기관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이루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고장 군민들이 좀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초지대교에서 코로나-19 발열체크 자원 봉사활동에 참가를 한 자랑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힘이나마 강화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참여하겠습니다.

머지않아 평범한 우리 일상을 다시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케팅 전문 유튜브·라이브커머스 창업·창업가 양성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 선정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센터장 윤정혁, '센터')가 인천시 주관 '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센터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해 유튜브 및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농특산물, 관광자원,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 마케팅과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맞춤형 교육 후 전문가를 양성하고 멘토링과 컨설팅을 통해 창업·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센터는 단순 일자리 연계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와 창업에 필요한 훈련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꿈과 희망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지난 1월에는 2022년도 운영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청년창업 스타트 지원 ▲경력단절여성 창업교육 ▲강화청년공간 '청년센터마루' 운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유튜브 스튜디오 및 편집실

영 ▲예비 창업자 입주공간 지원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양성 ▲취업 아카데미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정혁 센터장은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중으로 모집해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농특산물,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을 전문적으로 홍보 마케팅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1]

강화군-미국 팰리세이즈파크시, 도서·문화교류

강화군은 국제 우호도시인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시로부터 미국 원서 20권을 기증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팰리세이즈파크시 공립도서관은 연령별로 가장 인기 있는 도서 20권을 엄선해 강화군에 보내왔다. 이는 지난해 4월 강화군립도서관에 국제 우호도시기증 도서코너를 마련한 뒤 전달받은 두 번째 도서이다. 팰리세이즈파크시보낸 장서는 강화군군립도서관에서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현지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장난감들도 함께 보냈다. 군은 강화군청어린이집에 전달해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인기도서 20권과, K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달고나' 및 기타 게임용품을 팰리세이즈파크시 공립도서관에 전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돈독한 우호관계를 위해 국제교류를 이어가겠다며, 이번 도서 교류로 계기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기획예산과_팰리세이즈파크시 교류

“정월대보름 福 꾸러미로 행운 맞으세요~!”

강화군자원봉사센터, 맞춤형 행복상자 전달

강화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4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관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160가구에 맞춤형 행복상자 '정월대보름 福 꾸러미'를 배부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읍·면 자원봉사 상담가들은 福 꾸러미 정성껏 제작하여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 전달했다.

정월대보름 福 꾸러미에는 한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뜻으로 약식, 오곡세트(잡쌀, 조, 팥, 수수, 검정콩), 부럼세트(땅콩, 밤, 호두)와 코로나19 예방 물품인 면마스크·끈세트 등을 담아 구성하였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맞춤형 행복상자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활 밀착형 꾸러미를 제작하여 행복하고 훈훈한 나눔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강화군자원봉사센터_정월대보름 福 꾸러미 배부

고촌도서관 달밤 인문학

“우리 가족, ” 전쟁 같은 사랑

모아ECC 교육상담 코칭 대표이자 가족상담사, 분노조절상담사,
ADHD 상담전문가 한지수 강사님과 함께 합니다.

운영일시 > 2022. 3. 15.(화) ~ 3.22.(화) 매주 화요일 19시 ~ 21시

강 사 > 한지수 (모아ECC 교육상담코칭 대표)

대 상 > 학부모 30명

운영방법 >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

접수기간 > 2022. 2. 28. (월) 9시 ~ 모집 마감시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김포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행사 강좌/교육

문 의 > 031) 5186-4853~54

3월 15일 억울한 관계 부모&자녀

- ☑ 자녀의 나이에 따른 부모 역할 변화
- ☑ 수평적 관계에서 아이 대하기
- ☑ 적당한 거리에서 슬기롭게 존중하기

3월 22일 품안에 자식

- ☑ 문헌형 외물이 성향을 보이는 자녀
- ☑ 자녀와의 관계 개선
- ☑ 자녀가 주는 상처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2022년 고촌도서관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삶의 유일한 동반자-인성」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한 인성교육

“올바른 인성 확립을 위한”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한 대인관계 발전

접수기간
- 2022.02.16(수)~마감시

운영기간
- 2022.03.10~2022.03.31 4회차 매주 목요일

강사
- 박원순 원장((사)박원순인성교육개발원 이사장)

접수방법
- 고촌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행사 신청

운영시간
- 14:00 ~ 16:00(오후)

운영방법
- 비대면 강의(온라인 ZOOM강의)

회차	강의 내용
1회차(3월10일)	인성교육 개념과 목적
2회차(3월17일)	생애주기별 인간의 일생
3회차(3월24일)	인간의 심리분석
4회차(3월31일)	인성서비스와 조직

*자세한 안내는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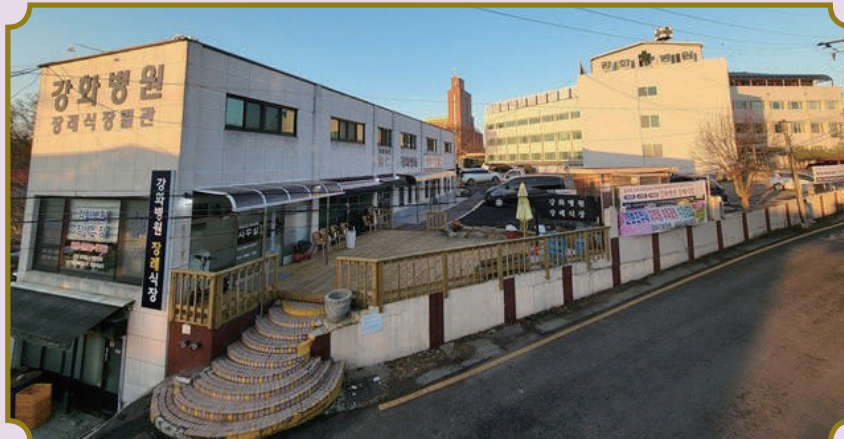
김포시립도서관 고촌도서관



강화병원 장례식장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장례의식을 엄숙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과 편안하고 청결한 분위기로 유가족 입장에서 모든 장례절차를 상담하고 내 가족의 일과 같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일동은 고인과 유족을 성심 성의를 다하여 장례서비스를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화병원 장례식장

장례상담 · 묘지관리 · 석제품일절



복음교회 김 군 실 장로

Mobile 010.2668.7766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12번길 11

Tel 032.933.0405
032.933.0406

묘지관리 전문

전국 묘지공사 전문업체
1급장례지도사, 후불제상조



Mobile 010.2668.7766

Tel 032.933.0012 / 032.934.6780

E-mail kgs7766@naver.com



NAVER

강화묘지이장@

검색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